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학생의 발표 주제로 적절한 것은?

- ① 택견의 유래
- ② 택견 동작의 멋
- ③ 택견의 전승 과정
- ④ 택견 수련의 절차
- ⑤ 택견 보유자의 조건

2. (물음) 대화에서 다룬 그림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일상의 체험에서 받은 인상이 드러난 그림
- ② 소재가 지닌 특징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림
- ③ 감상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그림
- ④ 그림에 대한 동서양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그림
- ⑤ 실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

3. (물음) 강연자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도	표정
첫 번째 자료	감정을 드러내려 함	감정이 드러남
두 번째 자료	㉠	㉡

- ㉠

① 감정을 숨기려 함
- ㉡

감정이 드러남
- ② 감정을 숨기려 함

감정이 드러나지 않음
- ③ 감정을 드러내려 함

감정이 드러남
- ④ 감정을 드러내려 함

본래와 다른 감정이 드러남
- ⑤ 감정을 드러내려 함

감정이 드러나지 않음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대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책의 판매량 증가 여부
- ② 전자책의 장점
- ③ 남녀별 선호하는 전자책의 분야
- ④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기의 종류
- ⑤ 전자책 구매량의 연령층 순위

5. (물음) 남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인 통념을 비판하며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낯선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사람을 사례로 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에 착안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기 장인은 먼저 무엇을 위해 옹기를 만드느지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흙을 골라 채취한다. 그다음에는 흙을 매만지고 반죽하여 흙가래를 만든다. 이 흙가래들을 쌓아 올려 서로 연결되도록 두드리며 몸체를 만든다. 이때 구조상 각 부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쉽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각 부분이 잘 연결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몸체를 만든 후에 장인은 옹기를 전체적으로 살펴 울퉁불퉁한 곳을 매끄럽게 손질한다. 장인들은 옹기에 다른 사람의 무늬와 구별되는 무늬를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다. 좋은 옹기는 장인의 솜씨와 정성이 깃들어 기능성과 조형미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착안점 흙 ≡ 글감, 옹기 ≡ 글, 장인 ≡ 글쓴이

- ①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한 글감을 선택한다.
- ②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생성한 내용을 보완한다.
- ③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짜임새 있는 글을 쓴다.
- ④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을 다듬는다.
- ⑤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만의 문체를 살린다.

7. ‘응급 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문: 학생 대상의 응급 처치 교육을 활성화하자.

I. 서론

응급 상황 발생 시 학생의 대처 능력 부족

II. 응급 처치의 한계㉠

1. 인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임.
2. 회복 및 치료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됨.

III. 응급 처치 교육의 문제점

1. 응급 처치 교육 기회 부족
2. 응급 처치 관련 교육 자료의 부족
3. 강사의 시범 보이기에 그친 교육 내용㉡

IV.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

1. 응급 처치 교육 기회 확대
2. 학생 체험을 통한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
3. 유행성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 교육 강화㉣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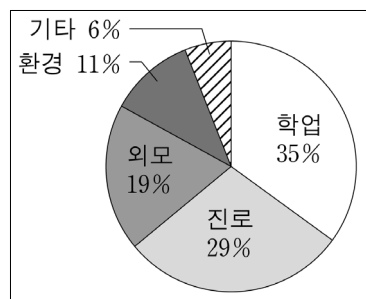
응급 상황의 종류와 발생 빈도㉤

- ① ㉠: 하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응급 처치의 의의’로 수정한다.
- ② ㉡: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IV-2’와 맞바꾼다.
- ③ ㉢: ‘III-2’를 고려하여 하위 항목에 ‘응급 처치 교육 자료 확보 및 활용’을 추가한다.
- ④ ㉣: 상위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⑤ ㉤: 글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촉구’로 대체한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내 학생 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학생의 고민 내용 조사



(나) 희망 상담자에 대한 학생의 요구 조사

순 위	내가 선호하는 상담자	내게 도움이 되는 상담자
1	친구	교사
2	선배	선배
3	교사	친구

(다) 연구 보고서

- 상담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일회에 그친 상담보다 서로에 대한 공감과 신뢰가 쌓이면서 상담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배와 후배를 연결해 서로 상담할 경우, 선배는 학습 동기를 심어 주고, 학습 방법 습득에 도움을 주어 후배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가): 학생들이 주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들어 학업이나 진로와 같은 고민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함을 밝힌다.
- ② (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와 도움이 되는 상담자가 다른 경우가 있음을 들어 상담자 선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③ (다): 일회적인 만남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상담 효과가 커짐을 들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 ④ (가), (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인식함을 들어 교사를 상담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⑤ (가), (다):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선배와의 상담을 통해 학습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들어 선배를 상담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9.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청산도의 바다

하늘과 바다, 산이 모두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청산도’. 그곳은 산비탈을 따라 놓인 논과 밭, 푸른 바다와 어울리는 나지막한 집들과 돌담길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섬이었다. ㉡ 나는 먼저 구들장 논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사 진에서 본 적이 있는 상서리 돌담길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 전체에 구불구불한 돌담이 이어져 있는 상서리로 갔 다. ㉢ 상서리 사람들은 매우 바빠 보였다. 층층이 쌓아 올 린 돌담은 소박하게 지어진 농가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포 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구들장 논은 청산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풍경 이다. 구들장 논은 산비탈을 깎아 돌로 축대를 쌓고, 그 안 에 돌을 넣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 ㉣ 돌로 평평하게 만든 바닥 위에 흙을 깔아 구들장처럼 만든 것이다. 이는 흙이 귀한 섬에서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한 섬사람의 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도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경과 정취를 내게 선사한 곳이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가 보고 싶다.

- ① ㉠은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산도의 돌담’으로 바꿔야겠어.
- ② ㉡의 내용을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③ ㉢은 문단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문장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그 위에’로 바꿔야겠어.
- ⑤ ㉤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맨 앞에 ‘청산도는’을 추가해야겠어.

10. 작문 시간에 ‘친구를 칭찬합니다’를 주제로 간단한 문구를 작성 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3점]

<보 기>

- 대상이 되는 친구의 행위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
- 역설법을 활용할 것.

- ① 시각 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김○○을 칭찬합니다.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② 토요일마다 경로당에 가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장○○을 칭찬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웃음꽃, 할머니의 마음에는 행복꽃. 이번 기회에 우리도 힘을 보탭시다!
- ③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박○○을 칭찬합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그림 덕분에 어둡고 침침했던 골목이 환해졌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녀가 예쁘게 보입니다.

- ④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정○○을 칭찬합니다.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과거 속에 존재합니다. 문화재를 알리는 일에 당신도 함께하세요.
- ⑤ 사회 복지 시설에서 과학 실험 봉사를 하는 최○○을 칭찬 합니다. 아직은 아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힘들어 하지만, 당신이 돕는다면 친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1.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 기>

○ ‘ㅏ, ㅑ, ㅓ, ㅕ, ㅗ,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ㅘ, ㅙ, ㅚ, ㅜ, ㅠ,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 ‘ㅘ, ㅙ’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 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됐다

- | | | |
|-------|----|-----|
| ㉠ | ㉡ | ㉢ |
| ① 패다 | 팬 | 패었다 |
| ② 패다 | 팬 | 패였다 |
| ③ 패다 | 패인 | 패였다 |
| ④ 패이다 | 팬 | 패었다 |
| ⑤ 패이다 | 패인 | 패였다 |

12.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그 폭포의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 매우 놀라다)
- ② 이 가게에는 누나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 마음에 들다)
- ③ 사람들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 동동 발을 굴렀다.
(→ 안타까워하다)
- ④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러 다닌다.
(→ 일 처리가 빠르다)
- ⑤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허를 내들렀다.
(→ 안쓰러워하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자는 예(禮)를 제안하였다.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으로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 장치는 아니었다.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으며,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정명(正名)에서 시작한다고 하며, 정명을 실현할 주체로서 군자를 제시하였다.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는 군주다운 덕성을 갖추고 그에 ㉠ 맞는 예를 실천해야 하며,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 부모 자식도 그러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과 형벌에 ㉡ 기대어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공자는 보았다.

공자가 제시한 군자는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예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원래 군자는 정치적 지배 계층을 ㉢ 가리키는 말로 일반 서민을 가리키는 소인과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군자와 소인을 도덕적으로도 구별하였다. 사리사욕에 ㉣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소인과 도덕적 수양을 최우선으로 삼는 군자를 도덕적으로 차별화한 것이다. 군자는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다운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자가 당시 지배 계층에게 도덕적 본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근거한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자는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명을 통한 예의 실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참되고 미더운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내면을 잘 ㉤ 살피라고 하였다. 이렇게 도덕적 수양을 할 뿐만 아니라 옛 성현의 책을 읽고 육예(六藝)를 고루 익혀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느 한 가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독려했다.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성인(聖人)이다.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를 가리키는데 언제 어디서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당시의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이끌고자 하였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제후국의 패권 경쟁이 심하던 시대였다.
- ② 공자는 군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 ③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를 실현할 주체로 군자를 제시하였다.
- ④ 공자는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군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보았다.
- ⑤ 공자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법과 형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4. 위 글에 나타난 ‘예(禮)’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 ② 당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 ③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사회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다.
- ④ 사회 구성원의 신분적 평등 관계를 추구하는 규범이다.
- ⑤ 모든 계층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규범으로 강조되었다.

15.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소인이 군자가 되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 ㄴ. 군자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유학에서 목표로 삼는 대상이다.
- ㄷ. 소인도 도덕적 수양을 하고 학문적 소양을 갖추면 군자가 될 수 있다.
- ㄹ. 군자와 성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도덕적 본성의 완성 여부를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6. ㉠~㉤를 한자어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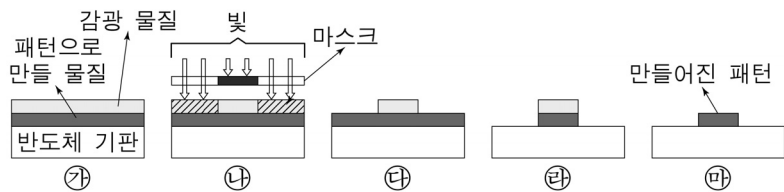
- ① ㉠: 합당(合當)한
- ② ㉡: 의거(依據)하여
- ③ ㉢: 지칭(指稱)하는
- ④ ㉣: 매수(買收)되어
- ⑤ ㉤: 성찰(省察)하라고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는 반도체 소자가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패턴의 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패턴의 크기를 줄여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이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판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유사성이 있다. 원판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판화를 종이 위에 찍어 낼 수 있듯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제작한 후, 빛을 사용하여 같은 모양의 패턴을 기판 위에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 판화의 원판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만든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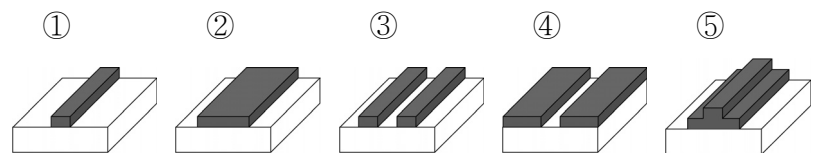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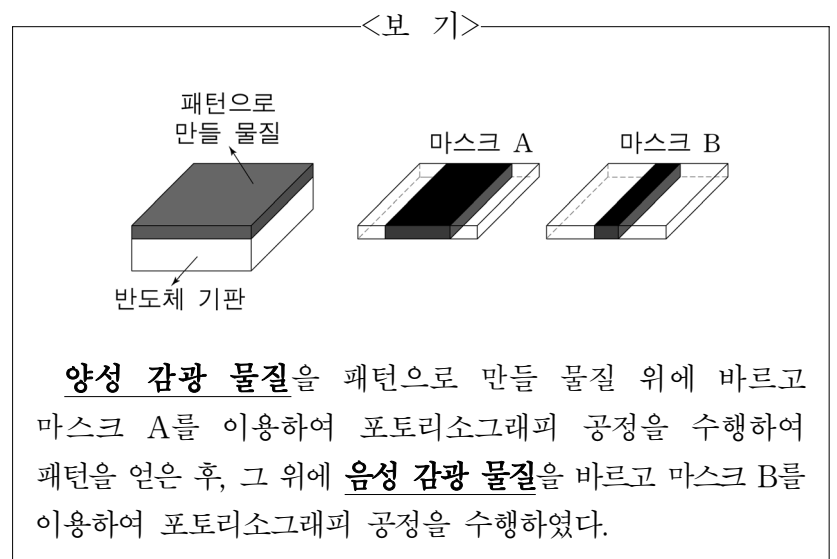
먼저 ㉠와 같이 패턴으로 만들 물질이 코팅된 반도체 기판 위에 감광 물질을 고르게 바른다. 감광 물질이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을 말한다. 두 번째로, ㉡와 같이 마스크 위에서 빛을 쏘여 준다. 마스크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데, 빛은 마스크의 패턴을 제외한 부분만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며, 이때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 물질만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세 번째로, ㉢에서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하면 ㉣와 같이 된다. 이렇게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을 양성 감광 물질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쓰는 감광 물질을 음성 감광 물질이라고 한다. 네 번째로, ㉤에 남아 있는 감광 물질을 보호층으로 활용하여 감광 물질이 덮여 있지 않은 부분만을 제거하면 ㉥와 같은 모양이 된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에는 ㉥와 같이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

한편, 반도체 기판 위에 새길 수 있는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는 노력과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정교하고 미세하게 마스크에 패턴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다.

1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도체 기판 위에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② 포토리소그래피에 쓰이는 마스크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 ③ 마스크에 패턴을 새겨 넣는 레이저는 판화의 조각칼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 ④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보다 작다.
- ⑤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쓰이는 감광 물질이 달라진다.

18. <보기>의 모든 공정을 수행했을 때,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될 패턴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광 물질 없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 ②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 ③ 빛을 사용하지 않고 패턴을 복사하는 방법의 발명을 위해
- ④ 한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
- ⑤ 반도체 소자 생산을 위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단계를 줄이기 위해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여보 장모!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
 [A]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
 리까?”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바라를 땡땡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 이고 등
 룡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
 고 사정에도 간곳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
 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쏘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모르는 말씀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
 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
 하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氣絶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몸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
 [C] 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홀랑은 오
 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임을 만나 만단
 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
 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
 하여라!”
 [D]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결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임
 을 생시에 본단 말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린 임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
 하랴.
 —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E]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설위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
 운환(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걷어 엮고 이리 비
 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삶군인 척 달려들
 어 둘러엮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직한 데 누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
 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육
 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엮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 선산(先山)발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
 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伸冤)*이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수절원사: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신원: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
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② ㉡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③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④ ㉣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⑤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22. [A]~[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어사또’와 ‘춘향 모친’은 높임말로 서로에게 존대하고 있다.
- ② [B]: ‘춘향’은 자책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춘향’은 불평하는 말로 ‘모친’에 대한 원망(怨望)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춘향 모친’은 비꼬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 ‘춘향’은 자문자답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조변석개(朝變夕改)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붕어빵’을 팔던 가게에서 붕어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빵을 ‘잉어빵’이란 이름의 신제품으로 내놓았다고 하자. 이 잉어빵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붕어: 붕어빵=잉어: ’와 같은 관계를 통해 잉어빵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붕어와 붕어빵의 관계를 바탕으로 붕어빵보다 크기가 큰 신제품의 이름을 잉어빵으로 지었다는 뜻이다. 붕어빵에서 잉어빵을 만들어 내듯이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보통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머릿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한다. 이 단계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 따라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종이로 만든 공’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단어를 찾는다. 그런데 근거 단어가 될 만한 ‘○○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축구공, 야구공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공, 가죽공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 공 앞에 오는 말이 공의 사용 종목인 반면 후자는 공의 재료라는 차이가 있다. 국어 화자는 종이공을 고무공, 가죽공보다 축구공, 야구공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종이를 할 때 쓰는 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이로 만든 공’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종이로 만든 공’을 의미하는 종이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불필요한 단어를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위 글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무엇인가?
- ②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 ③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외에 어떤 단어 형성 방식이 있는가?
- ④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⑤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25.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로 알맞은 것은?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	떠올린 단어	근거로 삼은 단어	만든 단어
①	수정으로 만든 반지	결혼반지, 금반지	금반지	수정반지
②	인삼 가루를 탄 물	바닷물, 설탕물	바닷물	인삼물
③	회갑을 기념하는 떡	생일떡, 호박떡	호박떡	회갑떡
④	비닐로 만든 옷	겨울옷, 비단옷	겨울옷	비닐옷
⑤	돌로 만든 잔	유리잔, 우유잔	우유잔	돌잔

26.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운탕’과 달리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싱건탕’을 제안했지만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싱건탕’은 국물이 맑은 ‘싱건김치’라는 말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언중들은 ‘싱겁다’란 의미에 주목하여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중들은 ‘매운탕’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탕’의 국물 빛깔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맑은국’에서 유추한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싱건탕’이 ‘맑은탕’보다 국어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싱건탕’과 ‘싱건김치’ 간에는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찾을 수 있겠군.
- ③ ‘맑은탕’은 ‘탕’의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추한 결과물이겠군.
- ④ ‘싱건탕’과 ‘맑은탕’은 모두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방식으로 만들었겠군.
- ⑤ 언중들이 ‘싱건탕’을 짜지 않은 탕으로 해석한 것은 ‘싱겁다’의 의미에 이끌렸기 때문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흔다 붉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 [A]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 [B]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것이다
- [C]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 [D]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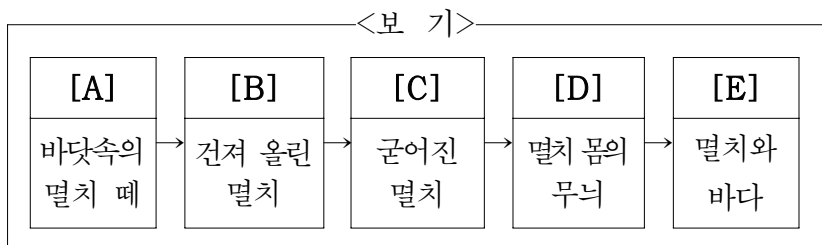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9.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속된 과정이다. 이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바로 제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놀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노동력이 소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휴식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려면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해야 한다. 이런 소비는 소비자에게는 놀이이지만 여행사에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결국 소비자의 놀이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유용한 사물인 자본을 판매자의 손 안에 가져다준다.

놀이가 상품 소비의 형식을 띠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한다. 과거의 놀이가 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는 대개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나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산자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놀이 상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예를 다시 들면, 여행사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수동적으로 소비한다. 놀이로서의 여행은 탐구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정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놀이에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향은 비교적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하다. 젊은 세대는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크다. 인터넷은 그런 욕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인터넷의 주요 특성은 쌍방향성이다. 이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구경꾼이면서 참여자이며 수신자이자 송신자로 활동하며, 이러한 쌍방향적 활동 중에 참여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된다.

31. 위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②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제의와 집단적 놀이가 결합되어 있었다.
- ② 고대 사회에서는 희생 제의를 통해 자연을 유용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 ③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휴식이 상품 소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이가 상품화되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되었다.
- 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 충족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33.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회사원 A 씨는 축구를 좋아한다. 최근 A 씨는 근무 중 틈틈이 ㉠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축구 경기 동영상을 즐겨 본다. 회사에서는 ㉡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풀라고 이를 허용한다. 주말이나 휴일 아침에 A 씨는 ㉢ 친구들과 모여 축구 시합을 하고, 저녁에는 ㉣ 경기장에 직접 가서 프로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 가끔 새벽에는 ㉤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인터넷 축구 방송을 보면서 친구들과 댓글을 달며 같은 팀을 응원하기도 한다.

- ① ㉠은 쌍방향적 놀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겠군.
- ③ ㉢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한 예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은 놀이의 구경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은 친구들 사이의 연대감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3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집에 도착하거든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 ②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
- ③ 마음을 바로 써야 복을 받는다고들 한다.
- ④ 우리는 국기를 바로 다는 방법을 배웠다.
- ⑤ 학생들은 모자를 바로 쓰고 단정히 앉았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강호 한 꿈을 꾸곤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사
 홀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툼 이 없을 건 다만 이젠가 여기노라
 이제는 소 빌 이* 맹세코 다시 말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련만
 두세 이랑 밭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 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소 빌 이: 소 빌리는 일.

*빈이무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

(나) 천심절벽(千尋絕壁) 섰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어조 생애: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백조: 모든 새.

*내곳: 내가.

(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오히려 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켜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 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혹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鱗)로 벗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 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회멸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한묵: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있다.
- ② (나)는 정중한 어조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 ③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6. (가)~(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죽’은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나)의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 ③ (다)의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 ④ (가)의 ‘풍월 강산’과 (나)의 ‘세간’은 풍류의 공간이다.
- ⑤ (나)의 ‘광풍’과 (다)의 ‘소식’은 화자를 번민하게 한다.

37. **[A]** 부분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다. <보기>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년 살라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숭(石崇)*이는 몇 해 살았나

* 원헌: 춘추 시대에 청빈(淸貧)하게 산 학자.
* 석숭: 진(晉)나라 때의 큰 부자.

- ①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더하여 사건의 선후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 ③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사 속 인물을 끌어와 화자의 삶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8. [B]와 [C]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의 초장은 수직과 수평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 ② [B]의 중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B]와 [C]의 중장은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어옹’과 (다)의 화자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암조어(寒巖釣魚)』

이 그림은 바위에 앉아 낚시하고 있는 어옹(漁翁)을 그린 것이다. 어옹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세상사를 넘어서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어옹은 세속의名利(名利)를 떠나 자연 속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 ①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②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③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잡으려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④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것을 원하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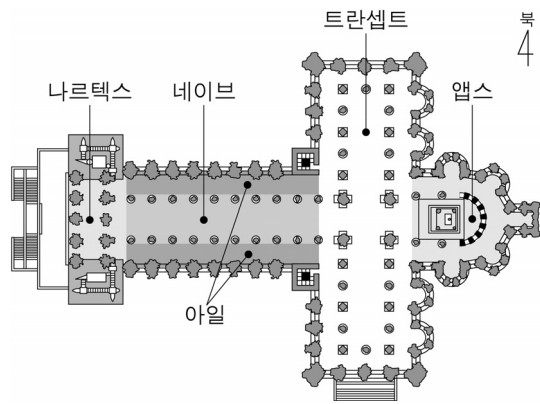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는 성당 건축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시대에 걸쳐 유럽의 성당은 다양한 ㉠ 양식으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그 기본은 바실리카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형식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시장이나 재판소와 같은 ㉡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에 ㉢ 절정을 이루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평면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서쪽 끝 부분에는 일반인들의 출입구와 현관이 있는 나르텍스가 있다. 나르텍스를 지나면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네이브가 있고, 네이브의 양 옆에는 복도로 활용되는 아일이 붙어 있다. 동쪽 끝 부분에는 신성한 제단이 자리한 앱스가 있는데, 이곳은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나르텍스부터 네이브와 아일을 거쳐 앱스에 이르는 공간은 세속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 위계를 보여 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직자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실리카

식 성당은 앱스 앞을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트랜sept라는 공간이 추가되어 ㉤ 열십자 모양의 건물이 되었다. 이때부터 건물은 더욱 웅대하고 화려해졌는데, 네이브의 폭도 넓어지고 나르텍스에서 앱스까지의 길이도 늘어났으며 건물의 높이도 높아졌다.

절정기의 바실리카식 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기둥이나 창 등을 통해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 인상을 준다. 이는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다. 출입구 쪽의 외벽과 기둥에는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새겨 넣기도 하고, 실내의 벽과 천장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등을 담은 그림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특히 벽면에는 스테인드글라스로 구성된 커다란 창을 사람의 키보다 높게 설치하여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내부 공간에 풍부하게 퍼지도록 하였다. 이는 서양의 중세인들이 모든 미의 원천을 신이라고 보고 빛은 신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바실리카식 성당은 기능적 공간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조각, 회화, 공예 등이 한데 어우러져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40. 바실리카식 성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축물이다.
- ② 4세기경에 출현하여 이후 부분적 변화를 겪었다.
- ③ 종교적 기능을 가진 로마 시대의 건축에서 유래했다.
- ④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웅대해지고 화려해졌다.
- ⑤ 실내의 벽과 천장을 종교적 예술 작품으로 장식하였다.

41. ㉠의 실내 공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일은 현관문으로 건물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
- ② 나르텍스는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곳이다.
- ③ 트랜sept는 종교 의식이 확대되면서 추가된 공간이다.
- ④ 앱스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 통로이다.
- ⑤ 네이브는 제단이 놓인 곳으로 성당 내에서 제일 신성한 곳이다.

42. 위 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미의 원천으로 인식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건물 각 부분의 공간 구성에는 인체 비례가 적용되었고, 지붕에 있는 신들의 조각에도 마찬가지였다. 건물 외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며, 길게 뻗은 기단 등을 주로 활용하여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준다.

- ① 파르테논 신전은 바실리카식 성당과는 달리 건물에 조각 장식을 새겨 넣지 않았군.
- ② 파르테논 신전은 바실리카식 성당과는 달리 외부에서 보면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주는군.
- ③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빛을 통해 건물의 내부를 강조했군.
- ④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평면의 형태가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군.
- ⑤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당대의 미의식이 건물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군.

4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문학, 예술 따위의 형식.
- ② ㉡: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 ③ ㉢: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 ④ ㉣: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짐작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
- ⑤ ㉥: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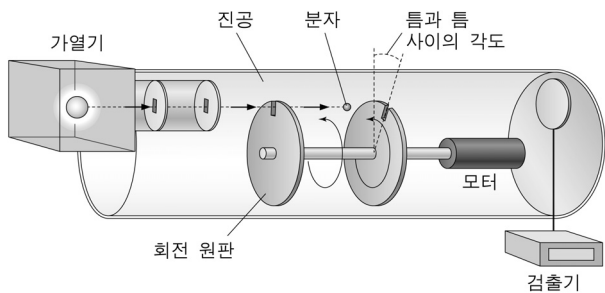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온에서 대기압 상태에 있는 1리터의 공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질소, 산소 분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체 분자들이 있다. 이들 중 어떤 산소 분자 하나는 짧은 시간에도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을 하며, 충돌을 할 때마다 이 분자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어떤 구간의 속력을 가진 분자 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분자들의 속력 분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태에 있는 산소처럼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 우리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 경우에 분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게 된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는 맥스웰의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로축을 속력, 세로축을 분자 수 비율로 할 때 종(鐘)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진다. 이 속력 분포가 의미하는 것은 기체 분자들이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꼭짓점 부근에 해당하는 속력을 가진 분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은 온도와 기체 분자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온도만 올리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빠른 쪽으로 이동한다. 이와 동시에 그래프의 모양이 납작해지고 넓어지는데, 이는 전체 분자 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같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체 분자 수와 온도는 같은데 분자의 질량이 큰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느려져서 분포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느린 쪽으로 이동하며, 분자 수는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뾰족해지고 좁아진다.

그림은 맥스웰 속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⑦ 밀러와 쿨리가 사용했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기와 검출기 사이에 두 개의 회전 원판이 놓여 있다. 각각의 원판에는 가는 틈이 있고 두 원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원판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서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가열기에서 나와 첫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으로 입사한 기체 분자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들만 두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을 지나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의 속력은 다양하지만,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특정한 속력 구간보다 더 빠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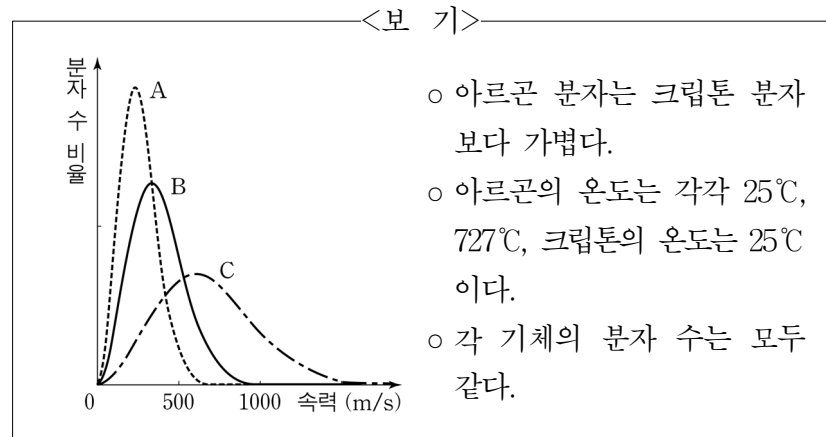
자들은 두 번째 틈이 꼭대기에 오기 전에 원판과 부딪치며, 느린 분자들은 지나간 후에 부딪친다.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같은 회전 속력에서도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것이다. 이 각도를 고정하고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을 바꾸면, 새로운 조건에 대응되는 다른 속력을 가진 분자들을 검출할 수 있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온도에서 특정한 기체의 속력 분포를 알아보았더니, 그 결과는 맥스웰의 이론에 부합하였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분자들의 충돌은 개별 분자의 속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② 대기 중 산소 분자 하나의 운동 궤적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
- ③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
- ④ 분자의 충돌에 의해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 ⑤ 대기 중에서 개별 기체 분자의 속력은 다양한 값을 가진다.

45. <보기>의 A, B, C는 맥스웰 속력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기체와 그래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아르곤(25℃)	아르곤(727℃)	크립톤(25℃)
①	A	B	C
②	A	C	B
③	B	C	A
④	B	A	C
⑤	C	B	A

46. ⑦과 연관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맥스웰 속력 분포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② 첫 번째 회전 원판에 입사된 기체 분자들 중 일부가 검출기에 도달한다.
- ③ 첫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은 다양한 값의 속력을 가진다.
- ④ 원판의 회전 속력은 같고 틈과 틈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 더 빠른 분자들이 검출된다.
- ⑤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고정하고 원판의 회전 속력을 느리게 하면 더 느린 분자들이 두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킷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킷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다.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 빠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썩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 향라 적삼: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윗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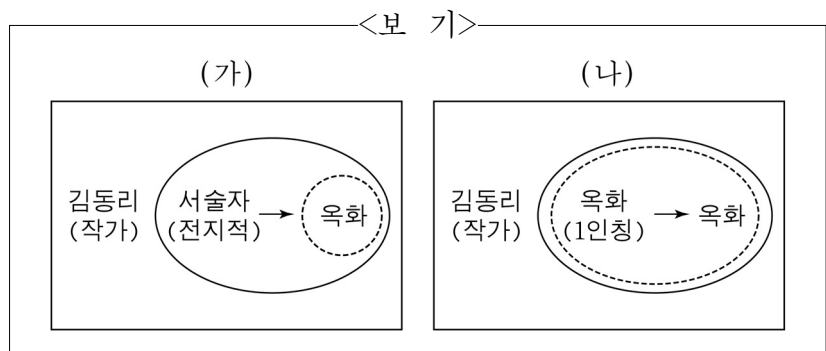
* 통정: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명도: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48.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으로 눈물로 씻었다.
-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49. ㉠과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향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목소리’는 ‘뼈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③ ㉡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 ④ ㉡의 ‘뼈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5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ㄴ.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① ㄱ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 ② ㄱ에 따르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 ③ ㄴ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④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 ⑤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